



홈커밍데이

Home Coming Day

새벽 '흠커밍데이' 잔잔한 인기

극단 새벽의 2008 신작 '흠커밍데이'가 소리없이 잔잔한 인기를 얻고 있다.

'흠커밍데이'는 지난 7일 시작했다. 3주째 접어드는 공연이다. 큰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관객이 들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완성도 높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사진이라는 매체와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모티브다. 전설적인 포토 저널리스트 로버트 카파의 이름을 딴 대학의 사진동아리 '카파의 가방'의 해체를 앞두고 마지막 열린 흠커밍데이가 무대다. 리얼리즘 사진을 매개로 세대별 역사인식과 단절된 세대와의 소통

을 얘기한다.

'흠커밍데이'는 재치있는 연극적 장치가 눈길을 끈다. 폴필름 한 통 한 통을 펼쳐보듯 진행되고, 배우들의 움직임은 카메라 셔트 소리와 함께 사진 한 컷으로 관객들에게 각인된다. 연극의 호흡을 끊지 않으면서, 변화의 재미를 두었다. 재치있는 장면 전환 덕분에 연극은 전혀 지루하지 않다. 마지막에는 무대가 전시관으로 변하는 깜짝 변신을 한다. 오는 6월8일까지 광복동 소극장 실천무대. 공연시간 평일 오후7시30분, 토 오후5·7시30분, 일 오후5시. 월 화 공연없음.

*문의:극단 새벽(245-5919)









